

아침세평

박병훈

특목브레인심리발달연구소 대표



어느 새 가을이다. 철모른 꽃들이 어울리지 않게 가을을 물들이고 있으나 가을에 어울리는 색깔은 단연 오색단풍이다. 남녘에는 아직 가을이 도착하지 않았다.

이 무렵 어릴 때 방안에 피워 놓은 화롯불이 생각난다. 나는 화롯불로 인해 고생을 많이 했다. 화롯불에 오른손을 대어 지금도 손가락 4개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화상을 입은 내가 손의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 보채 어머니는 나를 어르느라 잠시도 방안에 있지 못했다고 한다. 어렸을 때 나는 할아버지와 한 방을 쓰며 생활했다. 장손에 장남이라는 이유로 할아버지와 겹삼도 했다.

16년을 그렇게 보냈다. 할아버지와 보낸 시간은 내게 다양한 경험을 선물했다.

그 중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마음을 갖게 한 것이었다. 우리 동네에 보파리 상인들이 물건을 팔러 오면 할아버지는 그냥 보내는 법이 없었다. 오지이기도 하고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라 우리 마을에서 다음 마을로 이동 하기에 애매할 경우가 많았다. 할아버지는 그 때 마다 그 상인들을 사랑체에 채우고 식사를 대접

이타성·사랑, 채우는 아비투스 ‘청년은가’

해 보냈다.

나는 한 때 어느 종교공동체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다. 그때 경험한 일들과 사람들이 지금도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수줍고 내성적이었던 나를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함께 생활했던 몇명은 지금도 형제로 지내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필요한 경험이 결핍할 가능성이 그만큼 큰 것이다. 친구가 없는 삶, 고립의 삶, 디지털 누에고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계층이나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무의식적으로 사고방식, 성향, 행동양식을 학습한다. 이를 아비투스라고 한다. 프랑스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외가 만든 개념이다. 아비투스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아비투스는 계층의 흔적이기도 하다. 이 아비투스는 대부분 습관처럼 보이지만 생각 이전에 불쑥 튀어 나온다. 환경이 바뀌고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변화시킬 수 있다. 지식을 쌓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가치관이나 행동을 학습하면 아비투스는 바뀐다.

광산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은가가 미취업청년들의 아비투스를 바꾸기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미취업청년들은 부모와 동거를 하면서 다양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미취업청년들은 부모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과 불변같은 물론이

반복적인 취업 실패로 인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게 된다. 어떤 미취업청년은 부모와 마찰이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카페를 전전하면서 생활을 하다보니 에너지를 모두 소진한 경험을 하면서 취업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청년은가는 겨울에 화롯불을 마주하며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생활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 후에 입주가 결정되면 20여명의 미취업청년들이 공동으로 생활을 한다. 물론 주거비는 무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기관리, 정서안정과 심리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대인관계 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진로탐색과 자기계발, 직업훈련을 병행함으로써 생애설계 관점에서 취업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벌써 5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청년은가에서 공동체생활을 하고 있는 미취업청년들은 새로운 아비투스를 만들 어가고 있음에 틀림없다.

짚은 취업 실패로 인해 취업의욕과 삶의 의욕을 잃고 지쳐갈 때 손을 내밀어 준 공동체가 있다는 것,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등불처럼 자신의 삶을 을 안내해 준 청년은가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며 배운 것들을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에 다시 환원하겠다는 아비투스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사람과 이타성의 아비투스가 그들의 삶으로 증명되기를 기대한다.

기고

박석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상생협력TF실장



인공태양이 미래 청정에너지원으로서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 대전환시대 재생에너지와 함께 무탄소 고효율의 에너지원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인공태양은 태양 내부의 핵융합 반응을 지상에서 구현하는 기술로 수소 원자핵이 결합해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한다.

화석연료와 달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수소 1g으로 석유 8톤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완전한 미래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경북(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은 2022년 개교 이후 기후위기 와 에너지 전환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태양 등 6대 연구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전국 최고의 관련 분야 교수와 연구진이 에너지 AI, 신소재, 차세대 그리드, 수소, 환경 기후기술, 핵에너지(인공태양) 등 분야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의 해법을 찾고 있다. 특히 인공 태양 트랙인 핵융합에너지연구소에서는 핵융합 핵심요소기술인 초전도도체와 고온 플라스마 등을 연구하는 전국 최초 초전도도체 시험설비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인공태양 전문가들을 초청 각종 포럼(NGEF 2024)을 통해 핵융합에너지 국내외 연구 동향과 협력방안 그리고 한국형 핵융합로(K-star) 연구 진행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왔다. 이 과정에

서 인공태양 연구 인프라의 필요성과 전남(나주) 유지를 주장하고 공유했다.

특히 이 연구 인프라는 경북이 추진하는 에너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R&D 시설로 경북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정부(과기부)는 에너지 패권경쟁 속에서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고 미래 전력에너지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인공태양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유치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총사업비 1조2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연구시설로 2027년부터 10년 간 한국형 핵융합로 핵심기술 개발 및 핵심연구 실증인프라를 구축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이다.

지금 전국 광역지자체 여러 곳에서 유치 도전을 내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전남(나주)은 타 지역보다 먼저 준비해 왔고, 유치함에 있어 여러 가지 비교우위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먼저, 에너지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핵심지역로서 K-그리드 인 재창업밸리를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산업단지를 분산에너지 특구와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또 에너지 고속도로와 스마트 그리드 등 정부 정책사업을 미래 에너지 산업으로 선제적으로 실행 중이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에너지수소로서 에너지 산학연 생태계를 총총히 갖추고 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 등 공기업과 경북, 전력연구원 등 연구기관·단체, 에너지기업 등이 나주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집적화되어 있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상조

연구·협력의 시너지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다.

셋째는 본 연구시설의 안전성과 확장성 그리고 지역사회 수용성이 높아 본 프로젝트를 계획 기간 내 가장 효율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 사업예정부지 인근에 에너지 국가산단을 개발하고 있어 사업 확장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한전 본사가 지역내 인접해 있어 필요한

전력공급(인입시설) 협의가 용이하고 경북 등과 공동 연구 및 협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핵융합 인프라 구축사업)은 전남도 게도이래 최대의 R&D 인프라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타 시도에 비해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전남에서는 미래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R&D 연구시설을 확충해 글로벌 연구단지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또한 유능한 연구인력 유입과 함께 인공태양이 상용화된 각종 연구소와 관련 산업이 집적화되어 미래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전남도(나주)에 유치되어야 한다. 전 도민과 기관단체가 함께 앞장서야 한다. 지난 5년 전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전에서 충북(청주)에 고배를 마신 것을 거울삼아 더 치밀한 준비와 유치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불가능은 없다. 단지 극복의 대상일 뿐이다. 전 도민이 하나되어 전남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모든 역량을 발휘해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서 인공태양 프로젝트가 미래 전남을 밝히는 빛이 되길 바란다.

사설

‘소상공인 살리기’ 이젠 체계적인 지원 필요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의 현주소는 ‘암울’ 그 자체다. 사상 유례없는 기침체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특별한 증명이 필요없는 주지의 사실이어서다. 이는 각종 통계자료에도 여실히 드러나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소상공인 경제변화상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 광주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37.8%다. 1년 차 생존율은 68.0%로 비교적 높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져 창업 5년 후 10곳 중 6곳 이상이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온라인 플랫폼 확산 등의 영향으로 이들의 폐업률도 11.7%나 됐다.

반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금융, 창업,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지원을 받은 사업체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눈에 띈다.

이들의 5년 생존율은 59.1%로 전체 평균보다 20% 이상 높고 1년 생존율 또한 85.4%로 일반 소상공인보다 10%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지원하면 뚜렷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광주시의회가 최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광주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효능성 조사’는 이들의 체감경기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여론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사에 참여한 522명의 소상공인중 82.8%가 ‘올해 지역경기가 악화했다’고 말했으며 자신의 사업장 상황도 73.6%가 ‘위축 또는 둔화했다’고 응답했다.

올해 광주지역 최대 화두였던 골목상점 증가에 대해서는 68.6%가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71.6%가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실질적인 매출 증가폭은 ‘10% 이하로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다’는 답이 55.4%로 과반을 넘어서 많은 숙제를 남겼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80.5%가 ‘골목상권 관리 전담 인력 필요’, 75.1%가 ‘현장형 골목상권 지원센터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기존의 단순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상권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각 지역 상권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체형형 전략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광주 빵페스타’ 빵 관광자원가능성 제시

광주의 로컬 베이커리 산업과 관광이 결합한 ‘빵 축제’가 큰 성과를 거뒀다.

광주관광공사가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올해 처음 개최한 ‘2025 광주 빵페스타’에 이틀간 1만 5000여명이 찾아 5억여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반산반의하며 연 축제가 대박이 난 것이다.

‘최고의 빵들이 가득한 공간, 미미당(美味堂)’을 주제로 열렸던 이번 행사는 광주를 대표하는 빵들이 ‘미미당’이라는 광주형 브랜드로 통합돼 선보였다. 베이에르, 롤리데이인 광주, 윤슬베이커리 등 내노라하는 지역 대표 베이커리 24곳이 참여해 100여 종의 대표 빵과 디저트를 내놓아 큰 인기를 끌었다.

실제로 축제 현장이 오프라인은 이를 내내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고 온라인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는 “오전 9시 반부터 줄 섰다”, “광주 빵이 이렇게 다양했다”, “분위기 좋은 페스타” 등의 인증글이 쏟아졌다. 관련 SNS 해시태그만도 1000건이 넘어서 정도였다.

‘가을 정월 속 빵축제’를 콘셉트로 꾸민 행사장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모티브로 한 참여형 이벤트존 운영도 여기에 한몫했다.

이번 축제의 핵심 콘셉트 ‘미미당’인데 광주 로컬 베이커리를 하나의 관광 브랜드로 묶어, 광주를 여행하는 이들에게 ‘빵으로 도시를 기억하게 하는 경험’을 만들어 보자는 광주관광공사 사장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이를 광주RUSE사업단 남부대학교 콘소시엄이 구체화해 교육·관광·콘텐츠를 아우르는 이번 빵축제가 탄생한 것이다.

대한제국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수익금의 일부를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에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더해 지역 상생형 축제로 의미를 높였다.

광주관광공사는 내년부터 대기 스트레스를 줄이는 스마트 웨이팅 시스템을 도입하고, 반죽·데코·굽기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배우고 먹는’ 복합형 콘텐츠 축제를 만들기로 했다.

또 이를 토대로 한 ‘광주 빵지도’를 만들고 전국 순회 팝업스토어도 추진하는 등 ‘미미당’을 광주의 대표 미식 브랜드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지역 베이커리 산업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처음 열여 나흘 성공을 거둔 이번 축제가 내년에는 더 진화하길 기대한다.

취재수첩

장학재단 광주청년창업센터, 창업 마중물 되길

송대영

경제부 차장대우



한국장학재단 광주청년창업센터가 청년 창업 생태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자리한 한국장학재단 광주청년 창업센터가 운영 중인 창업기숙사는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이 오직 창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와 창업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기숙사를 포함해 상담창구, 멘토링실, 공유 주방, 공유 사무실

등이 있어 시간,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선배 창업가, 창업 기관 관계자와의 인적 관계망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장학재단 주관 경영·세무·마케팅 프로그램도 배울 수 있어 대학(원)생의 주거·창업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청년들이 창업기숙사에 입주하며 창업을 꿈꾸고 있다.

소규모 창업이라도 임대료, 인테리어, 인허가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며 준비 과정 자체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통합 창업지원 플랫폼 창업기숙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3명의 청년 창업가를 배출했으며, 올해 기창업자 16명과 예비창업자 16명 등 32명이 머물

고 있다.

입주생은 창업기숙사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을 박람회, 창업경진대회에 출시하며 이들을 알렸다.

센터는 최근 청년 창업가의 마음 건강 관리를 위해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년 창업가 심리 지원 협약을 맺고, 입주생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한국장학재단 광주청년창업센터 창업기숙사는 12월 입주생 32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좋은 사업 아이템과 창업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1년간 무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설과 안정적 성장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많은 예비창업자, 기창업자가 한국장학재단 창업기숙사를 디딤돌 삼아 안정된 사업자로 성장하며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해 본다.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부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민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는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